

# ‘인상파’ 리얼리즘 형성에 대한 소고

고혜경(Ko, Hye-kyung) \*

(E-mail : lzsheng@hanmail.net)

논문접수일 : 2009년 1 월 15 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 월 19 일

게재확정일 : 2009년 2 월 21 일

---

\* 학위취득대학 : 북경사범대학  
현직: 광주보건대 초빙교수

## ‘인생파’ 리얼리즘 형성에 대한 소고

### <국문요약>

본 논문은 중국현대문학의 초기 리얼리즘 형성과정 및 인생파문학과 상관계에 대한 고찰이다. 문학연구회의 ‘인생파’작가는 ‘문학이란 인생을 조명하고 개조하는 역할을 하는 공구’임을 천명하였다. 이는 5.4신문학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현대문학 문예사조의 주류로서 리얼리즘은 어떤 경로를 통해 중국에 유입되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창작실천으로 나타났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문학연구회 작가들의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들의 소설 및 희극을 문제소설, 문제극이라고 한다. 이는 문예란 사회와 인생을 조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해내는 ‘X-레이’와 같다고 인식하고 있는 인생파 작가의 창작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리얼리즘은 시대상황이 유사했던 러시아 문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현대문학의 리얼리즘은 외래사조의 영향과 전통문학의 비판정신을 창조적이고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당시 중국의 시대상황에 맞게 창작으로 승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리얼리즘, 문학연구회, 인생파, 문제소설, 문제극

## I. 들어가는 글

중국현대문학사를 리얼리즘의 문학사라고 지칭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그러나 소설계혁명의 취지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까지 중국현대문학의 궤적을 살펴본다면 이는 전적으로 동의할 얻을 수는 없지만 일견 일리가 있다는 것은 수긍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현대문학사에 리얼리즘의 형성과 그 초기 발전과정의 궤적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중국현대문학에서 리얼리즘의 역할을 고찰해 볼 때 아편전쟁 이후 중국사회와 중국인의 삶을 가장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문예사조가 바로 리얼리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리얼리즘을 ‘인생과 사회를 관조하는 X-레이 광선’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비유는 리얼리즘의 공리적 기능을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문예사조로서의 리얼리즘에 대한 예술적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의구심은 이미 리얼리즘 형성 초기 창조사 작가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20세기 중국문학사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던 문예사조로서 리얼리즘은 문학작품 속에서 시종 인생, 사회, 인간과 같은 개념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중국신문학사 가운데 큰 흐름을 형성하였다. 리얼리즘은 20세기 초 서구에서 유입된 문예사조 가운데 인생 대하여 여러 가지 명제를 제시하며 다양한 유형으로 작품 속에서 표현되어 왔다. 20세기 초엽 중국이 처해있던 반봉건 반식민지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리얼리즘은 문학작품을 통해 중국민족에 대한 사상적 각성을 촉구하는 계몽주의적 역할과 인간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혀 가는 인도주의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처럼 중국현대문학사의 리얼리즘은 초기 발전단계에서 크게 계몽주의와 인도주의라는 두 가지 시

대적 과제를 문학을 통해 실천해 나가는 이론적 기반으로 문학의 자양분 역할을 해 왔다. 또한 서구에서 유입된 문학의 이론적 바탕으로서의 리얼리즘은 5.4시기 등장한 새롭고 다양한 작가군의 창작 실천을 통해 변증법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중국의 문학적 토양과 융화된 토착화된 리얼리즘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중국신문학의 리얼리즘은 서구로부터 이론적 양분의 유입 받는 동시에 중국 사회에서의 실천적인 창작경험을 거치면서 중국신문학사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흐름의 시대적 요구는 역시 계몽주의와 인도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5.4시기 문학창작의 목적으로서 계몽주의와 인도주의는 그것들을 특정한 시각에서 반영하고 있는 리얼리즘의 실천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계몽’과 ‘인도’의 대상은 중국의 선각자들에게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 ‘사람(人)’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 시기 ‘계몽’과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리얼리즘의 문학적 실천은 모두 다양한 각도에서 ‘사람(人)’이 주체가 되는 ‘인생’을 조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노신 또한 문예창작의 동기에 대해 ‘계몽’적 태도를 견지하였고 결국 ‘인생을 위한’ 것과 ‘인생을 개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였다. “‘무엇 때문에’ 소설을 쓰는지 말하자면, 나는 여전히 십여 년 전의 ‘계몽주의’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생을 위한’ 것이고 인생을 개량하기 위한 것이다.”<sup>1)</sup> 그러므로 그의 창작 역시 다양하고 풍부한 ‘인생’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5.4시기에 등장한 다양한 신문학 작가군 가운데 ‘계몽’과 ‘인도’의 문제를 ‘인생’과 결부시켜 실천적으로 창작활동에 반영하기 시작한 작가군으로 문학연구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연구회의 작가들은 창작활동에 리얼리즘을 반영함으로써 그들의 ‘爲人生’의 문학적 주장을 실천해 나아갔고 또한 그 과정에서 그들의 ‘爲人

1) “說到‘爲什麼’做小說罷，我仍抱十多年前的‘啓蒙主義’，以爲必須是‘爲人生’，而且要改良這人生。” 魯迅全集 4권·南腔北調集「我怎麻做起小說來」, 1991, p552.

生'의 리얼리즘은 이론과 창작의 두 가지 측면에서 나선형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학연구회의 리얼리즘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 20세기 중국의 리얼리즘이 신문학사에 문예사조로서 한 흐름을 형성하였다고 본다면, '爲人生'을 창작의 기치로 내세운 문학연구회의 리얼리즘은 그 흐름의 근원에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학연구회는 그 성립 자체만으로도 중국신문학을 새로운 발전 국면으로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들의 문학적 주장과 창작활동은 신문학의 리얼리즘 문학사라는 흐름을 형성하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신문학의 리얼리즘문학사를 논한다면 문학연구회의 '爲人生'리얼리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문학연구회 성원들의 문예창작활동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문학연구회 작가들의 창작은 사회적 상황이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창작의 태도에 변화를 나타낸 30년대 이후의 리얼리즘작가들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인생을 탐구하고 그를 통해 인생을 개조하는 것을 창작의 본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爲人生'의 리얼리즘은 신문학 리얼리즘 문학사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신문학 리얼리즘의 정착 초기 단계에서 인생이라는 제재를 문학창작의 근본적인 문제들과 연계시켜 나아갔다는 점에서 인문학적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인생파' 작가군을 배출해 낸 문학연구회의 문학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중국신문학의 리얼리즘문학사의 근원과 궤적, 그 이론적 토대를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타 문예사조와 마찬가지로 리얼리즘 또한 작가의 현실에 대한 일종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학연구회의 리얼리즘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은 중국신문학사의 초기 리얼리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문학연구회 작

가들의 문예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주장이 바로 리얼리즘 문예이론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다소 성급한 결론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다만 문학연구회의 리얼리즘에 대한 일람을 시도하고자 한다.

## II. 풀어놓는 글

### 1. 문학연구회 '인생파'작가군의 형성

일반적으로 20년대 초반을 중국신문학 발전기로 분류하는 지표로서 문학연구회의 창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21년 1월 4일 북경에서 창립된 문학연구회는 沈雁冰, 葉聖陶, 鄭振鐸, 王統照, 周作人, 耿濟之, 郭紹虞, 孫伏園, 許地山, 瞿世英, 蔣百里, 朱希祖 등 12인이 초기 발기인으로 설립하였다. 그들은 商務印書館에서 발행하는 문연소설잡지 『小說月報』를 자신들의 문학적 주장을 표현하는 진지로 삼았다. 문학연구회의 회원들은 신문학 창작에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舊文學의 재조명 및 외국문학의 번역 및 소개에도 공헌하였다. 5.4시기 문학연구회는 문학연구회의 회원들은 러시아, 프랑스, 동유럽문학 및 인도와 일본의 문학작품을 중국에 번역, 소개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중국의 독자들에게 외국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신문학의 미래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러시아와 동유럽 약소민족의 문학을 소개하는데 주력하였다. 러시아와 동유럽 약소민족 문학에 대한 번역과 연구는 문학연구회의 리얼리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학연구회는 후에 冰心, 朱自清, 廬隱, 魯彥, 老捨 등 당시 영향력 있는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여 회원이 170여명에 이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사단으로 발전하였다. 문학연구회에 참여했던 작가

들은 당시 문제극과 문제소설을 창작하는 작가들이 많았고 이들의 작품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제재로 삼는 것이었다. 이들이 창작을 통하여 인생을 조명해 보는 것은 리얼리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이는 문학연구회의 리얼리즘을 성숙시키는 초석 역할을 하였다.

문학연구회 창립 당시에는 비록 공통된 이론주장은 없었지만 대체로 그들 문학의 목적은 ‘爲人生而藝術(인생을 위한 예술)’로 집약되고 있다. 창립 당시 발표한 『文學研究會宣言』에서 그들의 문학에 대한 견해와 창립목적은 알 수 있다.

“문예를 즐거울 때의 유희나 낙심했을 때의 소일거리로 삼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는 창작이 하나의 작업이며, 더욱이 인생에 있어 가장 절실한 작업이며 마치 노동이나 농사와 같은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가 본회를 발기하는 목적은 보통의 문학회를 이루는 것 뿐만 아니라, 작가들 간의 연합을 기본으로 하고, 작업의 발전과 공고한 단결을 추구한다. 이는 비록 장래의 일이지만 우리의 중요한 희망이기도 하다.”<sup>2)</sup>

문학연구회의 성원들은 문학을 文以載道의 도구나 귀신의 이야기나 풍류를 다루는 소일거리로 삼는 봉건적인 문학관에 반대하고, 문학이야말로 인생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주장하며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공리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이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공리성에 주목하게 된 것은 문예창작의 목적을 ‘계몽주의’와 ‘인도주의’의

---

2) 文學研究會宣言: “將文藝当作高興時的游戲或失意時的消遣的時候, 現在已經過去了。我們相信文學是一種工作, 而且又是于人生很切要的一種工作; 治文學的人也當以這事爲他終身的事業, 正同勞農一樣。所以我們發起本會, 希望不但成爲普通的一個文學會, 還是著作同業的聯合的基本, 謀文學工作的發達與鞏固: 這雖然是將來的事, 但也是我們的一個重要的希望。” 본 선언문은 1921년 1월10일 『小說月報』 제12권에 게재. 『文學運動史料選』(上海教育出版社, 1979년)에서 재인용.

실현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그 실천적 방법으로 리얼리즘과 접하고 발전시켜나가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장에서 문학은 당연히 인생과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반영하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의 어두운 면과 소외되고 고통받는 인간의 삶에 주목하고 이를 문학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문학적 주장으로 문학연구회의 작가들을 ‘인생파’작가라고도 하게 되는 것이다.

문학연구회는 『小説月報』 외에 1921년 5월부터 『文學旬刊』을 기관지로 정하여 鄭振鐸이 편집을 맡았다. 『文學旬刊』은 북경과 상해에서 각각 따로 발행하였다. 상해에서 발행되던 『文學旬刊』은 『時事晨報』의 부간으로 출판되면서 문학평론과 외국문학의 소개에 치중하였다. 후에 『文學』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다시 『文學週報』로 이름을 바꾸면서 『時事晨報』로부터 독립 발행되었다. 상해 『文學旬刊』은 『文學週報』로 이름을 바꾸면서 창작산문과 시, 문학비평을 주로 다루었다. 주자청은 중화서국에서 발행하는 월간 『詩』의 편집을 맡는 등, 문학연구회 회원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진지를 확대하였다.

또한 문학연구회에서 편집을 맡았던 『文學研究叢書』는 1921년부터 1937년까지 상해의 商務印書館에서 발행하던 당시 규모가 가장 큰 문학총서였다. 『문학연구총서』는 창작과 번역 두 부분으로 내용이 구분되었다.

문학연구회는 創造社 및 일부 문학단체가 정치적 색채를 띤 것과는 달리 창작과 연구 및 외국문학의 번역에 전념하는 태도를 견지하여 순수문학사단으로서 학술적 성격을 지켜나갔다. 이렇듯 많은 신진작가들을 배출하고 그들의 작품을 출판함으로써, 문학연구회는 중국 최초의 문학사단으로 20년대 중국의 신문학 문단을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32년 일본이 만주지역을 침공하면서 상해를 폭격했던 ‘1·28상해사변’ 당시 상무인서관 건물이 일본군의 폭격으로 전소되면서 문학연구회의 진지 역할을 하던 『小説

月報』가 정간되었고, 다른 문학사단에 비해 정치적 색채 없이 결속력이 느슨했던 문학연구회는 결국 해산되었다.

문학연구회는 『신청년』의 문학주장을 더욱 발전시켜 계승한 문학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陳思和는 문학연구회의 ‘爲人生而藝術’에 대해 “이러한 사상은 계몽의 문학과 문학의 계몽이 서로 결합된 것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三大主義’와 ‘사람의 문학(人的文學)’이 발전한 것”<sup>3)</sup>이라고 보고 있다.

문학연구회 작가들의 작품을 ‘人生派’문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단지 ‘爲人生而藝術’이라는 구호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爲人生而藝術’이라는 구호는 문학연구회 성원들의 공통된 문학주장이나 강령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이 시기 창조사가 제창한 ‘爲藝術而藝術’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 부여된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파’문학의 의미는 문학연구회 작가들이 문예창작을 통하여 인생에 대한 탐구와 개조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문학과 인생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인류역사상 문예창작이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탐구해 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문예사조가 그렇듯이 리얼리즘 또한 작품 속에 인생을 표현하는 문학적 수단으로서 작가가 인생을 관조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리얼리즘은 세부적인 진실성에 기초하여 일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작품 속에 전형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리얼리즘 문학은 인생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 의해 개인에게 유한하게 규정된 인생을 무한한 것으로 개척하게 만드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리얼리즘문학의 인생과 사회를 개조하는 공리적 기능은 중국신문학 리얼리즘의 특성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또한

---

3) 陳思和: “這一思想, 包含了啓蒙的文學與文學的啓蒙相結合的意思, 基本上是‘三大主義’、‘人的文學’的發展。”, 『陳思和自選集』,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7, p37.

중국에 리얼리즘이 중국문단에 소개되면서 문학과 인생의 거리를 좁혀놓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문학은 인생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창작정신으로 삼고 있는 리얼리즘문학의 특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리얼리즘은 이론이나 창작 면에서 모두 문학과 인생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 리얼리즘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문학연구회가 ‘인생을 위한 문학(爲人生而藝術)’을 제창하기 시작한 것을 표지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창작의 목적에 대한 주장은 문학과 인생의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문학이 사회비판과 개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일종의 공리주의적 입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20년대 중국신문학의 리얼리즘은 서구에서 유입된 리얼리즘의 창작 기법과 사상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문학연구회의 ‘인생파’작가들의 창작을 통하여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학연구회의 초기 작가들 가운데 문제소설 창작에 성과를 보인 氷心, 廬隱, 王統照, 許地山, 葉聖陶 등이 바로 ‘인생파’의 리얼리즘형성에 기여한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연구회가 배출한 리얼리즘 작가들의 작품은 문학과 인생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당시 중국의 리얼리즘 작가군 형성에 기여하게 되었고 신문학사에서 명확한 ‘인생파’리얼리즘문학 사조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문학연구회 초기의 ‘인생파’작가들은 서구 특히 러시아의 ‘인생파’리얼리즘문학의 영향을 받아들였다. 이 시기 러시아의 작품소개 및 문예이론에 대한 연구가 급증한 것은 ‘인생파’작가군의 형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21년을 전후하여, 즉 ‘인생파’형성시기에, 작품번역 이외에 러시아의 문학회론의 번역소개가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였다.”<sup>4)</sup>노신은 “러시아의 문학은 니콜라스 2세

---

4) 溫儒敏: “到1921年前后, 也就是‘人生派’形成之時, 除了作品翻譯之外, 俄國的文學理論的譯介也驟然多了起來。” 『新文學現實主義的流變』, 北京大學出版社 1988, p25.

시기 이래로 ‘인생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주장이 탐구에 있건, 혹은 해결에 있건, 혹은 신비에 빠져드는 것이건, 퇴폐적인 것이건, 그 주류는 여전히 한가지, 바로 ‘인생을 위한’ 것이다.”<sup>5)</sup>라고 하였고, 모순은 “아마도 나와 같은 (문학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魏晉소품문과 齊梁詞賦의 夢遊세계에서 머리를 비집고 나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라웠던 것은 고난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한 러시아문학을 읽었을 때였다.”<sup>6)</sup>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중국에 유입된 초기 리얼리즘 문학사조는 러시아의 리얼리즘 사조를 중심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근대 러시아 문학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적 리얼리즘과 혁명적 미학이론은 중국의 ‘인생파’ 리얼리즘문학형성의 근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신문학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했던 작가들은 비교적 일찍 러시아의 ‘인생파’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대조는 1918년 『러시아 문학과 혁명』이라는 문장에서 러시아 문학의 두 가지 특징을 언급하였다. “하나는 사회적 색채가 농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인도주의가 발달한 것이다.”<sup>7)</sup>이들은 문장에서 비록 ‘인생을 위한(爲人生)’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인생파의 문학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5.4시기를 전후하여 톨스토이 체호프, 푸르케네프 등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이 대량으로 번역 소개되었다. 그 중 톨스토이의 작품이 특히 주목을 받아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와 평론이 비교적 많았다. 耿濟之는 『俄國四大文學家合傳』에서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국혼(俄國的國魂)이라고 평가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러시아 문학이 인생의 문학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從

5) 魯迅: “俄國的文學, 從尼古拉斯二世時候以來, 就是‘爲人生’的, 無論它的主意是在探究, 或在解決, 或者墮入神秘, 淪于頹唐, 而其主流還是一個: 爲人生。”(魯迅全集 4권, 『南腔北調集』, p432.

6) 茅盾: “恐怕也有不少像我這樣, 從魏晉小品、齊梁詞賦的夢遊世界里伸出頭來, 睜圓了眼睛大吃一驚的, 是讀到了苦苦追求人生意義的俄羅斯文學”。『契訶夫的世界意義』, 『世界文學』, 1960, 제1기.

7) 李大釗: “一爲社會的色彩之濃厚, 一爲人道主義之發達”, 『李大釗文集』上, 人民文學出版社, 1984.

他起我們才實認俄國文學是人生的文學”고 하였다. 문학연구회의 ‘인생과’작가들은 바로 이 시기 많은 러시아 문학작품들을 번역 소개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로부터 러시아의 ‘인생과’리얼리즘문학을 흡수하게 되었다. 王統照는 『俄羅斯文學片面』이라는 문장에서 러시아문학은 “인생의 고통을 낱낱이 깊은 곳까지 묘사하고, 전 세계를 위해 고통의 함성을 호소하는 것(描寫人生的苦痛, 直到了極深秘處, 幾乎爲全世界呼出苦痛的喊聲來)”이라고 표현하였다. 문학연구회가 성립된 후, 중국문단의 러시아 문학에 대한 연구는 더욱 깊이와 이해를 더해갔다. 문학연구회는 러시아문학 연구조를 운영하며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전면적으로 러시아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작가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10월 혁명을 전후하여 나타난 러시아의 혁명적 미학이론을 연구 소개하였다. 1921년 9월 『小說月報』는 ‘러시아문학연구특집호(俄國文學研究專號)’를 발행하고, 沈澤民이 크로포트킨의 『러시아의 비평문학(俄國的批評文學)』, 郭紹虞의 『러시아미학이론과 그 문예(俄國美論及其文藝)』 등 문장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러시아의 ‘인생과’비평가들을 소개하였다. 문학연구회의 작가들은 러시아 ‘인생과’리얼리즘 작가들의 예술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 또한 예술의 목적은 인생을 해석하고 인생을 비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생과’작가들의 문학에 대한 견해는 ‘인생과’리얼리즘 이론으로 정립되어 중국신문학의 리얼리즘 전파에 영향을 주고 하나의 문학사조로 발전하는 근원이 되었다. 러시아문학의 영향 이외에 동유럽의 약소민족의 인생과문학의 리얼리즘이 중국신문학 문단의 호응을 얻으며 영향을 주었다. 이에 대해 或者는 “중국과 약소민족간의 관계는 각종 문화와 (문학적)언어 가운데서 서로 상응하며 가까워진 것이다.”<sup>8)</sup> 노신과 주작인은 『域外小說集』에 북유럽 피압박 민족의 고통스러운 삶과 민족해방운동을 반영한 문학을 소개하였다. 호적은

8) 宋丙輝: “中國與那些弱小民族之間的關係問題則在各種文化話語中被相應地邊緣化了。” 「弱小民族文學的譯介與中國文學的現代性」, 『中國比較文學』2002, 제2기.

1918년 중국에 사회문제와 인생문제를 다룬 ‘입센주의(易卜生主義)’를 소개하였다. 『신청년』은 1918년 제4권 제6기를 ‘입센 특집호(易卜生專號)’로 발행하고, 이는 매우 빠르게 중국문화계에 ‘입센주의’에 대한 관심과 문제극 문제소설 등의 창작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1921년 10월 『소설월보』는 ‘러시아문학연구특집호(俄國文學研究專號)’를 발행하고, 이어서 ‘피압박민족의 문학특집호(被損害民族的文學號)’를 발행하여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 북유럽 약소국가의 문학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피압박 민족의 현실을 반영한 문학을 소개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의 문화계를 향해 “비록 정치적인 독립을 상실했을 지라도 하나하나 모두 불후의 인간의 예술”<sup>9)</sup>임을 주장한 것이다. 이 시기 문학연구회의 작가들을 통해 중국에 소개된 러시아와 동유럽 약소민족의 문학은 ‘인생파’문학의 전파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5.4시기 등장한 중국문화계의 선구적 지식인들은 강렬한 계몽적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위한’ 리얼리즘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비록 이 시기에 소개되고 창작된 작품들은 이론적 명확성의 결여와 예술기교의 미숙함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창작 또한 문학 외적인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창작활동에 임한 경우가 많았다. 비록 이러한 미숙함과 예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문학연구회의 ‘인생파’작가들은 문학과 인생의 관계를 리얼리즘적인 시각에서 조명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爲人生’리얼리즘의 발전

주작인은 「사람의 문학(人的文學)」에서 ‘사람의 문학’을 “인도

9) 茅盾: “雖曾失却政治上的獨立, 然而一个个都有不朽的人的藝術.”, 「一年來的感想與明年的計劃」, 『小說月報』1921년 제12권 제12기. 『茅盾文藝評論集』(上, 文化藝術出版社, 1981)에서 재인용.

주의를 근본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문자(用這人道主義爲本, 對人生諸問題, 加以記錄研究的文字。)라고 규정하며 문학과 인생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주작인 외에도 新潮社의 羅家倫은 “문학은 인생의 표현하고 비평하는 것”<sup>10)</sup>이라고 주장하였고 傅斯年은 “현재 문학의 정통은 인생을 위한 이유가 충족되는 문학”<sup>11)</sup>이라고 하였다. ‘인생을 위한(爲人生)’문학과 당시의 사회계몽적 요구는 인생이라는 화두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인생을 위한’ 문학은 문학연구회 ‘인생과’ 작가들의 창작을 통한 실천을 거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문학연구회는 ‘인생을 위한’ 문학을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론의 정립과 창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은 1921년 1월10일 『小說月報』 제12권 제1호에 발표한 「文學研究會宣言」을 통해 鴛鴦胡蝶派를 비판하고 문학을 한가할 때의 遊戲나 소일거리로 삼는 태도에 반대하고 문학의 인생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또한 문언문을 반대하고 백화문학을 제창하였다. 문학연구회의 작가들은 당시 백화문학을 반대하던 學衡派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것은 당시 중국문화계에 확산되던 ‘문언과 백화’를 둘러싼 논쟁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학연구회는 문예창작에서 백화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바로 ‘리얼리즘’을 제창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爲人生’의 문학이라는 칭호는 창조사가 ‘爲藝術而藝術’을 창작의 기치로 내걸고 ‘예술과’를 자칭하자, 중국문화계에서 문학연구회의 작가들을 ‘爲人生’의 문학 또는 ‘인생과’문학으로 구분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爲人生’은 단지 문학연구회 작가들의 공통된 창작경향일 뿐 문학연구회가 ‘爲人生’을 구호로 내세운 것은 아니었다. 다만 ‘爲藝

10) 羅家倫: “文學是人生的表現和批評”, 「什麼是文學?」, 『新潮』 1919年 2月 第1권 第2호.

11) 傅斯年: “現在文學上的正宗是爲人生的緣故的文學.”, 「白話文與心理的改革」, 『新潮』 1919년 5월 第1권 第5호.

術而藝術'과의 論戰에서 사람들은 '爲藝術而藝術'구호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爲人生而藝術'이라는 주장을 문학연구회에 부여하였을 뿐이다. 문학연구회의 '爲人生'의 창작경향은 매우 농후한 시대적이고 공리적인 색채를 띄고 있다. 이러한 색채는 당시 시대상황의 특수성과 문인으로서 중국지식인의 전통적인 사명감이 결합된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爲人生'은 창작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을 관조하는 태도라고도 할 수 있다. '爲人生'의 리얼리즘은 중국신문학사상 최초로 서구의 비판적 리얼리즘문학사조의 영향을 받아 토착화된 문학사조인 것이다. 또한 인생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한 것은 '爲人生'의 문학은 계몽사상과 인도주의를 종합한 리얼리즘라는 점에서 시대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제 '爲人生' 리얼리즘의 특색과 최초로 중국신문학에 리얼리즘의 기초를 열어간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래 5.4시기의 인생파의 리얼리즘 문학관은 체계적으로 완성된 형태가 아니었다. 또한 이론상에서 볼 때 개념이 모호하고 영성하였다. 당시 많은 작가들은 '爲人生'의 문학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爲人生'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했던 작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들은 단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爲人生'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이다. 문예사조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론적 체계를 세운 대표적인 작가는 대체로 주작인과 沈雁冰, 鄭振鐸을 들 수 있다.

주작인은 비교적 일찍 '爲人生'의 리얼리즘문학을 제창하고 소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1918년 4월19일 주작인은 북경대학에서 「日本近三十年小説之發達」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는데, 이 강연의 주요 내용은 일본의 '人生的藝術派'의 문학을 소개한 것이었다. 이 강연에서 주작인은 처음으로 '人生的藝術派'<sup>12)</sup>라는 용어를

12) 주작인의 강연문 「日本近三十年小説之發達」은 그 해 7월 『新青年』 제5권 제1호에 실렸다. 주작인은 이 강연에서 일본의 사실주의 문학가 坪内逍遙의 문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해 12월 주작인은 「사람의 문학(人的文學)」에서 ‘人的文學’을 “인도주의를 근본으로 삼아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기록하고 연구하는 문자(用這人道主義爲本, 對人生諸問題, 加以記錄研究的文字。)”라고 문학과 인생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는 「平民文學」에서 다시 한번 ‘人生的藝術派’의 문학을 긍정하며 평민문학의 개념<sup>13)</sup>을 설명하고 있다. 1920년 1월6일 북경의 少年學會에서 『新文學的要求』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면서, 그는 “인생의 문학은 오늘날 중국이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人生的文學實在是現今中國唯一的需要)”이라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람의 문학’의 뒤를 이어 나온 ‘평민문학’에 대한 주장은 다시 한번 정식으로 ‘人生的文學’을 제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해 11월의 강연 『文學上的俄國與中國』에서 그는 “중국은 장래의 신흥문학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사회와 인생의 문학이 될 것이다(中國將來的新興文學當然又自然的也是社會的人生的文學。)”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모두 문학과 인생의 관계를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규정짓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를 개인의 인생이 모여서 형성된 ‘群體人生’이고, 개인의 인생을 ‘個體人生’이라고 본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창작된 모든 작품들이 ‘인생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작인의 ‘人的文學’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회(군체인생)와 개인(개체인생)에 대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몽주의와 인도주의가 혼합된 형태의 리얼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

沈雁氷의 ‘爲人生’의 리얼리즘 문학관은 더욱 농후한 공리주의적 색채와 시대정신을 띄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인생과 작가들에 비해

---

학과 문학이론을 소개하면서 ‘人生的藝術派’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他因爲受了俄國文字的影響, 所以他的著作, 是‘人生的藝術派’一流; 脫去戲作者的游戲態度。也是他的一大特色, 很有影響于后世的。”

13) 「平民文學」은 1919년 1월19일 『每週評論』에 발표되었다. 주작인은 이 문장에서 평민문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平民文學應以普通文體, 寫普通的思想 and 事實。我們不必記英雄豪傑的事業, 才子佳人的幸福, 只應記載世間普通男女的悲歡成敗。”

사회 즉 군체인생에 대한 관심을 더 높게 가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학의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는 리얼리즘에 충실하다가 문학 본연의 가치에 대해 다소 소홀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沈雁氷은 문학연구회 리얼리즘문학의 대표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문학에 대해 “문제를 연구하는 문학을 많이 번역하는 것은 현 사회의 병폐에 대한 처방이며, 새로운 사상을 선전하는 최선봉이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총체적으로 본다면 그가 주장하는 ‘爲人生’의 리얼리즘문학관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핵심에 대해 그는 문학은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고, 인생을 지도하는 것이다(表現人生, 指導人生).”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문학은 어떤 인생을 표현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그는 “착취당하고 모욕당하는 자(被損害者與被侮辱者)”들을 동정하고 이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혁명분위기가 고조되자 심안빙의 ‘爲人生’의 문학관은 ‘爲無產階級’의 문학관으로 완전히 전환한다. 이러한 전환은 중국신문학사에서 ‘爲人生’리얼리즘문학의 정체성의 전환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鄭振鐸도 러시아 ‘인생과’리얼리즘문학의 영향을 받은 문학연구회의 중요한 이론가이다. 그는 러시아 문학을 중국이 수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삼 사십 년 동안 서구의 문학을 소개해 왔는데, 대부분 영국과 프랑스의 고전주의나 낭만주의 또는 消遣主義 소설이었을 뿐이다. 이래서는 영원히 세계의 근대문학의 가치를 알 수 없다. 수십 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확이 없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문학은 근대 세계문학의 결정체이다. 지금 러시아문학을 소개하는 것은 이로부터 우리가 근대 세계문학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것

14) 沈雁氷: “多譯研究問題的文學果然是現社會的對症藥, 新思想宣傳的急先鋒”, 『小說新潮欄宣言』, 『小說月報』 제11권 제1기,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제2권, 北京大學出版社, 1997)에서 재인용.

이고 중국신문학의 창조에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sup>15)</sup> 또한 “러시아의 문학은 사람의 문학이며, 철저하게 인생에 관여하는 문학이다. 또한 인류의 개성을 표현하는 문학”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6)</sup> 그는 『新學報』에 『러시아문학의 특징과 그 역사(俄羅斯文學底特質與其略史)』라는 문장을 통해 19세기후반의 러시아 문학은 “사회문제와 인생문제를 많이 토론하는 문학(多討論社會問題、人生問題的文學)”이라고 하였다. 『신문학관의 건설(新文學觀的建設)』이라는 문장에서 그는 “娛樂派”와 “傳道派”의 문학을 비판하고 “문학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함성(文學是人生的自然的呼聲)”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진탁은 ‘爲人生’의 리얼리즘문학관을 이용하여 봉건문학관을 개조하여야 하고 나아가 구사회를 개조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제창한 ‘피와 눈물의 문학(血和淚的文學)’<sup>17)</sup>은 ‘爲人生’리얼리즘 문학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血和淚的文學’이란 ‘피와 눈물이 섞인 먹물로 사회와 인생을 표현하는 문학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인생을 표현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인생을 쟁취하고자 하는 노력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의 문학관에는 혁명적 리얼리즘의 맹아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학연구회의 ‘인생과’ 리얼리즘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작가들이 일정한 정도로 기여를 하였는데, 주작인과 沈雁冰, 鄭振鐸 등은 ‘인생과’ 리얼리즘이 중국신문학사에 토착화하는데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15) 鄭振鐸: “我們三四十年來的西歐文學介紹, 大多是限于英法的古典主義、羅曼主義及其他消遣主義的小說, 永不能見世界的近代的文學的真價。几十年來的努力而一無收獲, 不可能謂非因此之故。俄羅斯的文學是近代的世界文學的結晶。現在能夠把俄國文學介紹來, 則我們即可以因此得見世界的近代的文學真價, 而中國新文學的創造, 也可以在此建其基礎了。” 「俄羅斯名家短篇小說集·序」,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에서 재인용.

16) 위의 글: “俄羅斯的文學是人的文學, 是切于人生關係的文學, 是人類的個性表現的文學。”

17) 鄭振鐸: 「血和淚的文學」, 『文學研究會資料』(上), 河南人民出版社, 1985.

### 3. 문제극과 문제소설

러시아 ‘인생파’ 리얼리즘의 유입과 5.4시대사조를 배경으로 제창된 ‘인생파’ 리얼리즘은 중국문단에 문제극과 문제소설의 창작열풍을 가지고 왔다. 그러므로 문제극과 문제소설의 창작은 중국신문학사에서 초기 ‘인생파’ 리얼리즘문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극의 창작은 중국신문학사의 리얼리즘 연극의 시작으로 초기부터 사회와 인생과 관련된 제재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문제극은 5.4시기를 전후하여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입센주의와 5.4시대 정신이 결합한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1918년 『신청년』은 ‘입센 특집호(易卜生專号)’를 발행하고, 阿英은 당시 중국문화계의 입센주의 열기에 대해 “새로운 사람이라면 그를 광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또한 거의 모든 간행물이 그에 대해 말하고 있다.”<sup>18)</sup> 라고 말하였다. 당시 입센의 『인형의 집』은 중국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문제극이라고 할 수 있다. 胡適, 歐陽予倩 등은 이러한 입센의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다룬 문제극은 당시 중국의 사회상에 비추어 볼 때 계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문제극에 대해 “당연히 철저히 사회의 각종문제를 다루는 것이다(應當痛痛快快處理一下社會的各種問題)”, “사람으로 하여금 가정과 사회에 유신혁명이 필요함을 느끼게 했다(叫人看了覺得家庭社會真正不得不維新革命)”<sup>19)</sup> 라고 표현하였다. 『文學研究會宣言』이 발표되고 몇 개월 후 民衆戲劇社도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소일거리로 연극을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극장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이는 사회를 움직여 전진시키는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의 병태의 근

18) 阿英: 「易卜生的作品在中國」, 『阿英文集』 제2권, 三聯書店, 1981.

19) 胡適: 「易卜生主義」, 『新青年』 제4권 제6기. (영인본에서 인용)

원을 찾아내는 엑스레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看戲是消閑的時代現在已經過去了, 戲院在現代社會中確是占着重要的地位, 是推動社會使之前進的一个輪子, 又是搜尋社會病根的X光鏡).” 민중희극사의 선언과 문학연구회의 선언은 그 사상 면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과 작가들의 적극적인 추진 하에서 문제극 창작의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입센의 『인형의 집』의 영향을 받아 애정과 혼인, 가정문제를 다룬 문제극이 속속 창작되었다. 胡適의 『終身大事』, 歐陽予倩의 『潑婦』, 熊佛西의 『青春的悲哀』 등이 그것이다. 하층민중의 문제를 묘사한 歐陽予倩의 『車夫之家』, 陳綿의 『人力車夫』, 교육문제를 다룬 葉聖陶의 『懇親會』 도덕윤리문제를 다룬 陳大悲의 『維持風化』 등등, 다양한 문제극이 창작되었다. 사회와 인생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생 문제에 관심이 높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극 창작열기의 영향을 받아 소설계는 문제소설의 창작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주작인은 비교적 일찍 1918년 문제소설을 제기하였다. “한가지 문제가 제기된다면, 소설의 형식을 빌어 그것을 연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제소설이다.”<sup>20</sup> 문제소설은 5.4계몽주의의 바탕 위에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생에 대한 진지한 사고를 결합시킨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문제소설은 농후한 시대정신을 띠고 있다. 문학의 사회계몽적 입장에서 볼 때, 문제소설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와 인생을 개조하는 사고의 단계로 들어서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연구회를 중심으로 冰心, 廬隱, 葉聖陶, 楊振聲, 王統照, 許地山 등등 당시 문학연구회의 작가들은 거의 모두 문제소설작가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문제소설은 다음과 같

20) 周作人: “提出一種問題, 借小說來研究它, 求人解決的, 是問題小說。” 「中國小說里的男女問題」, 『每週評論』 제7호.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 제2권에서 재인용)

은 다양한 제재를 택하고 있다. 氷心の 『斯人獨憔悴』, 『去國』, 『超人』 등과 같이 청년의 곤혹과 번뇌를 묘사한 작품들; 廬隱의 『或人的悲哀』, 『麗石의日記』, 『海濱故人』 등 섬세하고 간략한 필치로 젊은이들의 심리를 묘사한 소설들; 許地山의 『命命鳥』, 『綴網老蛛』, 『商人婦』 등 종교적이고 이역적 색채를 띤 작품들. 이러한 작품들은 모두 “인생이란 결국 무엇인가(人生究竟是什麼)”를 묻고 있는 문제소설들인 것이다. 氷心の 『一個憂鬱的青年』 중의 彬君은 늘 사회와 인생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우울한 청년이다. “지금 인생의 의의를 알고 싶고, 나의 인생관을 창조하고 싶다면, 일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現在要明白人生的意義, 要創造我的人生觀, 要解決一切的問題).”; 廬隱의 『海濱故人』에서도 인생에 대한 탐색은 계속된다.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人生到底作什麼)?” “무엇이 인생인가(什麼是人生)”; 鄭振鐸의 『淡漠』 중 “인생은 바로 인생이다. 그것의 결말을 물을 필요는 없다. 또한 그것의 목적을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人生就是人生, 不必問它究竟, 也不必找它的目的)” 이러한 결론도 주인공이 여전히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가운데 얻은 것이며, 여전히 인생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소설의 주인공들은 늘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이러한 문제의 사회적 근원을 찾는데 무력하기만 하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愛’와 ‘美’에 대한 추구와 같은 철학적 의미로 인생의 본질을 탐구하기도 하는 것이다. 빙심은 기독교의 박애주의사상과 타고르 철학의 영향을 받아 “진리는 한마디로 ‘사랑’이다(眞理就一个字: ‘愛’).”라고 한다. 그녀는 주로 모성애, 동심, 대자연 등을 노래하였다. 『超人』은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 또한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愛’인가 아니면 ‘懼’인가?”라고 묻고 있다. 또한 “세상의 어머니들은 모두 좋은 친구들이다. 세상의 아이들과 아이들 또한 모두 친구들이다(世界上的母親和母親都是朋友, 世界上的兒子和兒子也都是好朋友).”라고 말하며 모성애를 강조하고 있다. 『悟』에서 제기하는 모든 ‘깨달음

(悟)’은 “모든 것은 사랑을 위해서(一切只爲着愛)”라고 하며 사랑을 지고의 가치로 말한다. 엽성도는 초기 문제소설 『阿鳳』에서 아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문제의 해결을 “깊이있는 사랑과 청려한 아름다움(深沉的愛和清麗的美)”에서 찾는다. 王統照는 초기소설에서 氷心이나 葉聖陶보다 더욱 초월적인 사랑과 아름다움을 구한다. 『雪后』, 『微笑』, 『沉思』, 『一葉』 등의 작품이 그러한 경향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어두운 현실 앞에서 사랑과 아름다움은 무기력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단지 현실과 괴리된 환상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본다면 당시 문제극과 문제소설은 여전히 사상적으로 예술적으로 다소 유치한 측면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신문학사에서 리얼리즘문학이 성숙된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4. 향토소설의 출현

문학유파의 전성기라고 하면 대량의 우수한 작가와 작품이 출현한 시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년대 초반 문학연구회 창립을 전후하여 중국문단에는 ‘인생파’작가들을 중심으로 문제극과 문제소설의 창작열기가 중국문단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향토소설 작가군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들의 작품은 ‘인생파’리얼리즘 문학이 성숙한 열매를 수확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향토소설의 출현은 “향촌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현대지식인들의 눈앞에 놓은 숙명과도 같은 명제<sup>21)</sup>에 동의한 ‘인생파’작가들의 당연한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학연구회의 작가들은 러시아 리얼리즘의 영향을 받아들여 비

21) 範家進: “‘不了解鄉村, 就不了解中國’這一擺在現代知識分子面前的近乎宿命般的命題的。”『現代鄉土小說三家論』, 三聯書店, 2002, p29.

교적 일찍 향토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하였다. 노신의 리얼리즘 또한 향토소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의 향토소설의 성취에 대해 王瑤는 “중국문학사상 진정으로 농민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은 사람은 노신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sup>22)</sup>라고 평가한다. 노신은 향토소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의 『孔乙己』 『故鄉』 『風波』 『祝福』 등이 향토를 소재로 한 소설로서 후의 향토작가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노신은 “대체로 북경에서 붓으로 그들의 가슴 속을 찌내는 사람들은 그가 자칭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사실 향토문학인 것이다. 북경에서 본다면 (이들은) 僑寓문학의 作者인 셈이다.”<sup>23)</sup>

문학연구회 작가들 중 창작 면에서 徐玉諾의 『一只破鞋』 『祖父的故事』, 王思玷의 『偏枯』, 潘訓의 『鄉心』 利民的 『三天勞工的自述』 등 모두 비교적 초기에 출현한 향토소설들이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온 젊은 지식인들은 농후한 향토적 색채와 익숙한 사회하층생활의 체험을 토대로 향토문학을 창작하여 중국신문학사상 향토소설의 전성기를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향토소설작가로서 彭家煌, 許傑, 蹇先艾, 許欽文, 王魯彥, 台靜農, 王任叔 등이 있다.

‘爲人生’의 리얼리즘 문학사적 관점에서 볼 때, 향토소설의 출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향토소설은 하층민중의 다양한 인생을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 남녀의 애정문제를 다루던 문제소설을 타파하고 농촌을 제재로 선택하는 중국신문학사의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 내었다. 농민과 농촌 제재를 중국신문학 속으로 대량 끌어들이는 것이다. 5.4시기 문제소설은 대부분 젊은 지식인들의 인생을 묘사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그들의 애정문

22) 王瑤: “中國文學史上真正把農民當作小說中的主人公的, 魯迅是第一人。”『魯迅作品論集』, 人民文學出版社, 1984, p59.

23) 魯迅: “凡在北京用筆寫出他的胸臆的人們, 無論他自稱用主觀或客觀, 其實往往是鄉土文學, 從北京這方面說, 則是僑寓文學的作者。”『中國新文學大系·小說二集』 導言.

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인생과 리얼리즘작품으로서 초기 문제소설은 상당히 편협한 감을 버릴 수 없었다.

향토작가들이 작품 속에서 집중적으로 농촌의 생활을 묘사함으로써 중국신문학작가들은 제재 면에서 절대다수 농민의 고통스러운 인생 속으로 창작의 시야를 넓혀나가게 되었다. 향토소설은 사회로 하여금 당시 하층민중의 다수를 차지하던 농민의 인생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작용을 하였다. 許傑의 『賭徒吉順』, 許欽文的 『石宕』, 『鼻涕阿二』, 彭家煌의 『陳四爹的牛』, 蹇先艾의 『鹽巴客』 등의 작품이 모두 하층민중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묘사한 대표적인 향토소설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작품은 모두 현대문학사에 본격적으로 하층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爲人生’ 리얼리즘문학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향토소설은 리얼리즘적 창작 기법으로 하여금 진일보 발전하게 하였다. 향토소설은 출현 초기부터 리얼리즘의 기초 위에서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향토소설은 당시 중국 농촌의 현실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와 같은 역할을 할 만큼 리얼리즘적인 기법으로 향촌의 생활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향토문학작가들은 대부분 농촌출신으로 북경이나 상해와 같은 대도시로 와서 도시생활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머릿속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떠나질 않았고 창작에 있어서도 고향을 제재로 삼는 것은 우선이 되었다. 비록 그들의 초기 작품은 모두 주관적 색채와 감상적인 서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진실되게 기억 속의 향촌생활을 묘사하는 것이 창작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일정기간의 탐색을 거치면서 향토소설의 리얼리즘은 매우 빠르게 심도를 더해가는 동시에 성숙한 심미적 창작특성을 형성해갔다. 王魯彦의 『許是不至于罷』, 『菊英的出嫁』, 彭家煌의 『憊憊』, 許欽文的 『鼻涕阿二』, 台靜農의 『紅燈』, 王任叔의 『疲憊者』 등,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에서 향촌을 묘사하는 성숙한 작품들이 대거 발표되었다. 향토소설은 또한 강렬한 리얼리즘적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현실묘사는 단지 진실을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몰락한 농촌과 농민의 마비된 영혼과 병폐를 지적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것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제재로 삼아 인생을 개조하는 ‘爲人生’ 리얼리즘 문학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세월의 봉건통치의 영향으로 농민들의 영혼을 매우 깊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농촌을 개조하고 그들의 인생을 개조한다는 것은 당시 강렬한 시대적 요구이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향토소설은 도시생활에서 새로운 시대사조의 영향을 받은 향토소설작가들은 그들의 시대정신의 열정을 다시 농촌으로 돌려 창작으로 승화시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향토소설은 중국문학사의 농촌소설에 ‘爲人生’의 리얼리즘을 접목시킴으로써 농민의 인생을 고민하고 개조하는 새로운 농촌소설을 열어나간 것이다. 리얼리즘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토대로 창작된 ‘爲人生’ 리얼리즘의 첫 번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30년대 沙汀, 艾蕪 및 좌익작가들의 농촌소설 속에 더욱 성숙된 면모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III. 맺음글

문학연구회의 작가들은 ‘爲人生’의 구호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5.4시기를 전후해서 문학연구회를 그 주장의 주요 진지로 발전시켜 나아갔다. 아울러 비교적 완전한 이론형태를 만들어나갔는데, 이로써 5.4신문학에서 ‘爲人生’ 리얼리즘은 중국신문학의 주요한 흐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爲人生’ 리얼리즘의 발전은 5.4신문학발전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서구의 새로운 문예사조의 유입과 중국문화계의 독자적이고 자각적으로 이론적 성숙을 진행시켜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신문학의 리얼리즘은 독자적인 문예사조로서 자기만의 색채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爲人生’문학이 당시 최대의 문학사단인 문학연구회를 중심으로 형성 발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연구회의 주요성원이 바로 인생과의 입장을 견지하는 작가들이라는 점을 본다면 문학연구회가 바로 인생과 리얼리즘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연구회는 1927년 해체기를 맞이할 때까지 ‘爲人生’ 리얼리즘문학의 진지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문학연구회 창립초기 ‘爲人生’ 리얼리즘문학이 예술적인 기교면에서 본다면 30년대 출현한 작가들의 창작에 비해 조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은 작가들의 탐색정신은 매우 소중한 것이며 이러한 신문학의 리얼리즘문학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인생과’ 리얼리즘은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다. ‘爲人生而藝術’의 리얼리즘문학관이 형성되기까지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의 문예사조의 영향을 받아들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인생과’ 리얼리즘이 중국신문학사에 새로운 흐름을 형성한 것은 중국문학사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적 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그것은 전통적으로 중국문인들이 가지고 있던 적극적인 현실참여의식의 전통과 관련이 있다. 민중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작품 속에서 표현하는 것은 많은 전통문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문학적 전통이다. 이러한 전통문학 속에 내재되어 있는 리얼리즘문학관은 신문학작가들에게도 무언의 의무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러한 의무감은 시대상황과 맞물려 群體인생(사회)와 個體인생(개인)을 개량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爲人生’문학은 명확한 이념으로 인생을 파악하고 문학으로 하여금 인생을 지도하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고전문학의 ‘文以載道’의 문학관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54시기에 문이재도 문학에 대한 비판이 격렬하였지만, 사실상 ‘爲人生’문학 또한 ‘載道’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도’가 새로운 ‘도’일 뿐이다.”<sup>24)</sup>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爲人生’의 리얼리즘문학 또한 ‘載道’의 요소를 지닌 계몽적 역할이 강

하다고 볼 수 있다.

‘爲人生而藝術’의 리얼리즘문학관의 영향을 받아 문학연구회에는 창작활동에 참여하려는 지식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곧 ‘인생파’를 형성하였다. ‘인생파’문학은 현실생활의 각종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시야를 넓히고 제재를 다양하게 하였다. 氷心이나 廬隱같이 서정성이 농후한 ‘문체소설’을 쓴 작가도 있고, 이역의 정서와 풍취가 농후한 許地山의 소설이 있고 교육소설의 대표작가 葉聖陶의 소설도 있다. 그들은 창작의 실적으로 시대를 열어나갔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爲人生’의 리얼리즘문학은 점차 일종의 인생을 관조하는 우수한 전통을 형성하여 20세기 중국문학의 발전과정 중에 비록 구체적인 함의는 다르지만 인생을 관조하는 의의는 시종일관하고 있다. 30년대 좌익문학이 흥기하자 외적인 측면에서 ‘爲人生’은 ‘爲革命’ 또는 ‘爲無產階級’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내면은 여전히 ‘爲人生’을 근본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중국신문학은 독특한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啓蒙’과 ‘救亡’이라는 역사적 환경에서 ‘爲人生’의 리얼리즘은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동시에 하였다. 40년대 모택동의 ‘講話’이후 ‘爲大衆’과 ‘爲工農兵’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비록 계급성을 띄고 정치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여전히 ‘爲人生’의 문제에 근본을 두고 ‘爲人生’을 실천적으로 구체화시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작인은 『사람의 문학(人的文學)』을 제창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의 리얼리즘문학사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주작인이 『사람의 문학』에서 주장하는 문학의 의미 또한 ‘인도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것(以人道主義爲本)’과 ‘인생의 제 문제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것(記錄研究人生諸問題)’이다. 문학은 인생을 위해 존재한다는

24) “雖然‘五四’時期激烈地否定‘文以載道’，其實‘爲人生’里面也含有‘載道’成分，只不過它載的是一種‘新道’罷了。”(王嘉良，2002，211)

명제에서 말하는 인생은 모든 인간의 인생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인생파의 리얼리즘은 인도주의와 계몽주의를 갖춘 문예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0년대 이후 나타난 다양한 리얼리즘문학작품 역시 그 근본은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어떠한 형태의 리얼리즘이든 모두 ‘爲人生’의 리얼리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爲人生’의 리얼리즘을 창작에 가장 실천적으로 반영한 작가군이 바로 문학연구회이며, 이는 중국신문학의 리얼리즘 문학사에 근원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 『新潮』, 上海書店 영인본, 1988.  
『新青年』,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영인본, 2006.  
阿英, 1981, 『阿英文集』, 三聯書店.  
魯迅, 1981, 『魯迅全集(4, 6, 10)』, 人民文學出版社.  
李大釗, 1984, 『李大釗文集(上)』, 人民文學出版社.  
王瑤, 1984, 『魯迅作品論集』, 人民大學出版社.  
鄭振鐸, 1985, 『文學研究會資料(上)』, 河南人民出版社.  
黃修己, 1988, 『中國現代文學發展史』, 青年出版社.  
北京大學 北京師範大學 主編, 1979, 『文學運動史料選』, 上海教育出版社.  
吳宏聰, 1994, 『中國現代文學與民族文化』, 首都師範大學出版社.  
嚴家炎, 1995, 『中國現代小說流派史』, 人民文學出版社.  
劉鋒杰, 1995, 『中國現代六大批評家』, 安徽文藝出版社.  
劉紹棠, 1996, 『中國鄉土文學大系(現代卷)』, 農村讀物出版社.  
陳平原, 1997, 『陳平原小說史論集』, 河北人民出版社.  
嚴家炎, 1997,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 北京大學出版社.  
周作人, 1998, 『周作人文類編(1~10)』, 湖南文藝出版社.  
雷 銳, 1998, 『中國小說現代化五十年』,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陳思和, 1997, 『陳思和自選集』,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陳思和, 1997, 『中國新文學整體觀』, 廣西師範大學出版社.  
範家進, 2002, 『現代鄉土小說三家論』, 上海三聯書店.  
王嘉良 등, 2002, 『中國新文學現實主義形態論』, 文化藝術出版社. 李桂起, 2003, 『中國小說體式的現代轉型與流變』,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溫奉橋, 2004, 『現代性與20世紀中國文學』, 青島: 中國海洋大學出版社.  
李歐梵, 2005, 『中國現代文學與現代性十講』,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 'Renshengpai''s Realism

Ko, Hye-kyung  
(Gwangju Health College)

## Abstract

Realism writers (Renshengpai) are the most representative figure in modern Chinese literature. Wenxueyanjiuhui, founded in 1921, advocated Realism literature as well as the first modern-style Chinese novel, they also perfectly embodied the enlightenment idea of anti-feudalism.

When they wrote, they used classical Chinese and Russian realism, such as 'Wenti Novel' and 'Wenti Drama'.

Their continuous scholarly research strengthened the need for enlightenment through literature, which can be understood as an inward process of completion of the enlightenment anti-feudalism. Had they been allowed to devote themselves purely to scholarly research, he would have had far more distinguished achievements, in addition to their accomplishments in the field of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Keywords :** Realism, Wenxueyanjiuhui, Renshengpai, Wenti Novel, Wenti Drama, Russian realism